

도시농업테이블 회의록

일시	2021.01.14.(목) 오전10시	장소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작성자	정지선	작성일	2021.01.18.
참석자	안석희 센터장, 이은수 대표, 이남경 대표, 박영기 대표, 정지선 코디, 홍승완 코디.		
안건	1. 2021년 새해 계획 공유 2.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 2021년 활동 논의		
요약	<p>1. 2021년 새해 계획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천수텃밭 이은수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노원문화재단과 연결한 문화 플랫폼 구현 b. 도시농업테이블 네트워킹 및 공동주체 사업운영 c. 캠핑장 조성을 위한 목공실, 트리데크 조성 ㉡ 도봉 무수골 이남경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숙박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 운영 ㉢ 성북 성북수경네트워크 박영기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식량구급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61 yellow kitchen과 성북 내 실내 공간 고려. - 동북4구 센터 자문위원을 통한 동덕여대 '식량자원의 영양분석소'를 제안. <p>2.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 2021년 활동 논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동북4구 도시농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2안. 숲과 자연자원을 콘텐츠로 묶은 도시농업 투어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4구센터 마을여행 사업과 연결점 추후 논의. 3안. 변동주공 3단지, 자원순환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으로 진행시 예산 결합방법 확인 필요. 4안. 2022년 목표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가능하나 특별한 이점이 없음.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이후 수료생과 자원 활용 고민 필요. 5안. 도시-농촌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문제로 가져가 귀촌, 귀농 시스템으로 풀기. 6안. '허브관련 공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허브 식재를 관리하고 허브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 - 아우르네, 50+재단과 공간과 프로그램 논의 필요. 		
추후 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동, 공동 허브 쇼룸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이트와 식재하여 연결 □ 아우르네 공간 확인 2. 도시농업 투어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여행 사업과 논의 3. 실내 수경재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61 옐로우테이블 □ 성북구 3. 도-농 연결로서 귀촌, 귀농의 시스템 고려. (중장기 프로젝트) 		
향후일정	· 무수골 방문 1/22(금) 오전10시		

도시농업테이블 회의내용

내용

1. 2021년 새해 계획 공유

□ 노원구 천수텃밭 이은수대표

a. 문화 플랫폼 구현

: 코로나로 실내수업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숲에서 활동하는 수요가 높다. 도시농업에 문화예술과 체육을 결합하여 확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노원 문화재단에서 참여하고 예산과 행정을 풀 수 있도록 하여 문화플랫폼을 천수텃밭에서 구현하고 싶다.

b. 도시농업테이블 네트워킹 및 공동주체 사업 운영.

: 강북구 번동 3.4단지에 현재 텃밭이 조성되었다. 이곳에 동북4구 공동 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c. 트리테크와 목공실 조성

□ 도봉 무수골 이남경대표

a. 올해 캠핑장 준공하여 숙박이 가능해 진다. 역사문화연계하고 기존 것을 활용하여 단순체험을 넘어 경험으로 연결하고 싶다.

<방안> - 한살림 → 농업 살림 지원사업 '논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진청 → 농산물 팔기위한 테마 (논/체험)

- 공원녹지와 도시농업팀 : 구로 내려오는 예산 활용

□ 성북 성북수경네트워크 박영기대표

a. 식량구급상자

: 기후변화 대비해 전환도시운동 일환으로 식량안보 주제인 '식량구급상자'를 계획하고 있다. 식량 조달이 안된다는 가정 하에 하루에 식량으로부터 영양분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 영양분을 조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식량구급상자에 들어있는 것이다. 영양분에 관해 도움을 얻고자 동덕여대 등 대학 식품영양학과에 메일을 보냈다. 이를 기후위기시대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수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 공간은 없지만 연구와 기고로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잡고 있다.

⇒ 연구공간으로 미래 환경오염을 고려해 실내 공간을 찾고 있다. 수경재배는 쌓아서 재배 가능하며 시차를 두면서 키우면 비교적 토지사용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 홍승완 : 성북동 주민자치회 생활환경 분과위원장으로 지역에서 논의 해보겠다.

· 안석희 : 플랫폼61 yellow kitchen에 홍은정 선생님이 함께하는 담다 협동조합이 들어오기로 했다. 성북과 플랫폼61, 2곳을 고려해보자. 또한 동북4구 센터 자문위원인 동덕여대 교수에게 '식량자원의 영양분석소'를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2.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 2021년 활동 논의

□ 제안1_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 이은수대표

① 동북4구 도시농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예산:2백만원)

- 천수텃밭 노아의 방주에서 세미나를 만들어보았는데 좋았음.

② 숲과 자연자원을 콘텐츠로 묶은 도시농업 투어코스 개발 (예산:1천만원)

- 4개 사이트 x 5회 = 20회, *진행자와 온라인 꼭 필요

③ 번동주공 3단지, 자원순환 모델 확산 (예산:14백만원)

- 시민플랫폼의 예산이 크므로 동북4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공모전 방식도 있다. 번동의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모델로 가면 교육 프로그램만 넣으면 된다.
- 동북4구 자원순환 환경학교 모델이 주거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번동3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1호, 30주년의 의미가 있다. 텃밭, 논, 주민 커뮤니티가 있어 촬영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LH와 연계해서 더 많이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개 단지 10회 정도 해서 재료비 합, 1400만원 정도 든다.
- 예산: 기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지만,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결합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동북4구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석희 : 공통으로 2021 센터 예산이 많이 줄어 가능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와야 한다.
 - ②_마을 여행 사업에서 결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필요하다.
- 이은수 : ②_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콘텐츠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모임의 주체를 한 사람이 하지 말고 협업하여 모집, 진행하고 센터 자원 (ex.영상팀) 결합하는 프로세스가 쉬울 것 같다.

□ 제안2_ ‘2022년 목표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기관 설립’ - 안석희 센터장

- 이은수 : 도시농업센터가 권역별로 있으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마다 한 개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큰 이점은 없으며 현재 천수텃밭은 토지소유권 때문에 어렵다.
- 이남경 : 서울시농원지원센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1000명이 넘게 교육 받고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가 고민점이다. 노원, 도봉 출신 도시농업전문가 수료한 선생님이 굉장히 많다. 실질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 제안3_ ‘도시-농촌 연결’ - 안석희 센터장

- 센터장 : 일본의 사례처럼 도시에서 농업으로 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농’연결이 광역단위로만 되어 있다.
- 이남경 : 동북4구 동북권이다보니 연천에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의정부, 남양주, 하남 인프라는 포천·연천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 이은수 : 마들장과 연계 할 수 있다. 동북4구를 염두하고 기획하였다.
- 박영기 : 청주, 포항, 익산 이런 곳에서 수경재배에 관심이 많아 전문적으로 시설농업 전에 기초 강의들이 많이 들어온다. 수경재배가 가장 필요한 곳은 대도시인데, 서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경재배를 등한시 하고 있다. 설치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수경재배 수업 개설을 요청 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동북4구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

■ 제안4_ ‘허브관련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이남경 : 허브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19-20년도에 도봉1동 나눔환경분과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 대상 허브 힐링 프로그램을 했다. 허브오일, 차, 리스, 압화 등 다양한 교육 아이템이 있다. 참여자의 호응과 피드백이 좋았다. 도심 내 30-50평 혹은 더 작은 일정 공간에 허브수확이 가능하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1500평 공간에서 마을커뮤니티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박영기 : 성북구에서 전통 조각보 하는 단체가 있다. 쪽하고 흥학으로 염색을 하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식물을 성수네에서 키워주기로 했다.
- 이남경 : 생태수공원에도 올해 계획에 허브 정원 조성 예정이다. 관상용뿐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다. 무수골 생

태치유평원에 조경, 식재만 조성해놨는데 올해 계획이 생태체험관 건물을 건립하고 그 핵심요소 중 하나가 허브정원이다. 허브정원 식재할 때 속아주고 수확하는 것을 주민들과 협업해서 하고 싶다. 도봉구청은 생태치유평원 이름 하에 숲 관련 프로그램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일부분을 주민과 협업,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허브관련 교육을 열어 활용했으면 좋겠다.

- 이은수 : 도시농업이 꼭 텃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터전에 공원이 많다. 그 공원의 식재 방법만 바꾸면 된다. 풀을 심게 되면 풀은 번식력이 강해 잘 키우려면 잘라주어야 한다. 그 공원의 일부분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도시농업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은수 : 허벌리스트 2급 과정을 개정해서 양성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식물 식재와 노원구 상계동 기쁨의 교회 옥상에서 허브공간을 만들었다.
- 센터장 : 무수골, 천수텃밭도 가능하지만 넓고 삭막한 '아우르네' 공간을 허브로 두르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각각의 사이트에서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함께 쇼업하면 좋겠다. 아우르네처럼 쇼업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다.
- 이은수 : 50+재단 사업에 녹여서 결합하여 함께 하면 동북4구 센터와 50+재단을 하나로 보고 도시농업테이블 전문가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어 허브존을 가꾸거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다.
- 센터장 : 50+재단과 만나는 모임에서 프로그램 및 장소와 예산에 대해 제안해보겠다.